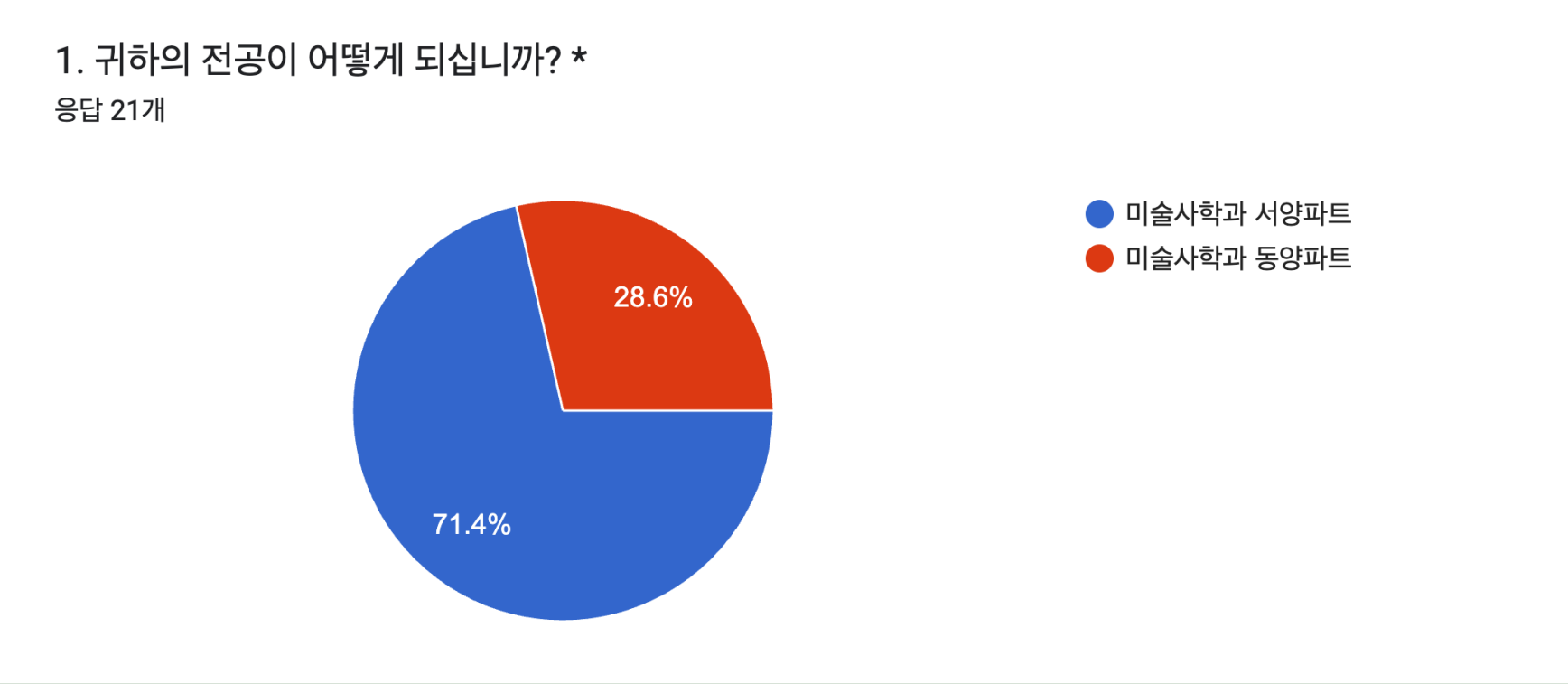
제3회 이화여자대학교
미술사학과 학술제 설문조사 결과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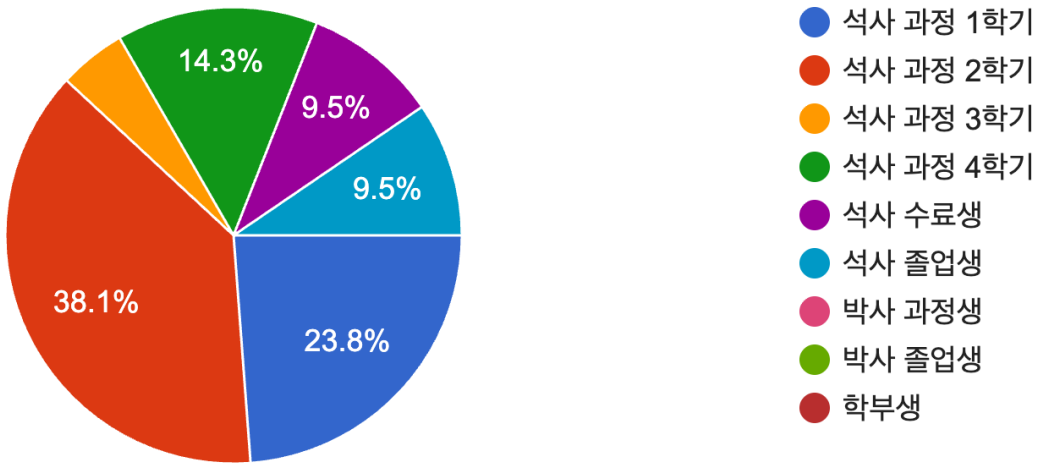
Ⅰ. 응답자 정보



동서양 총 21명 답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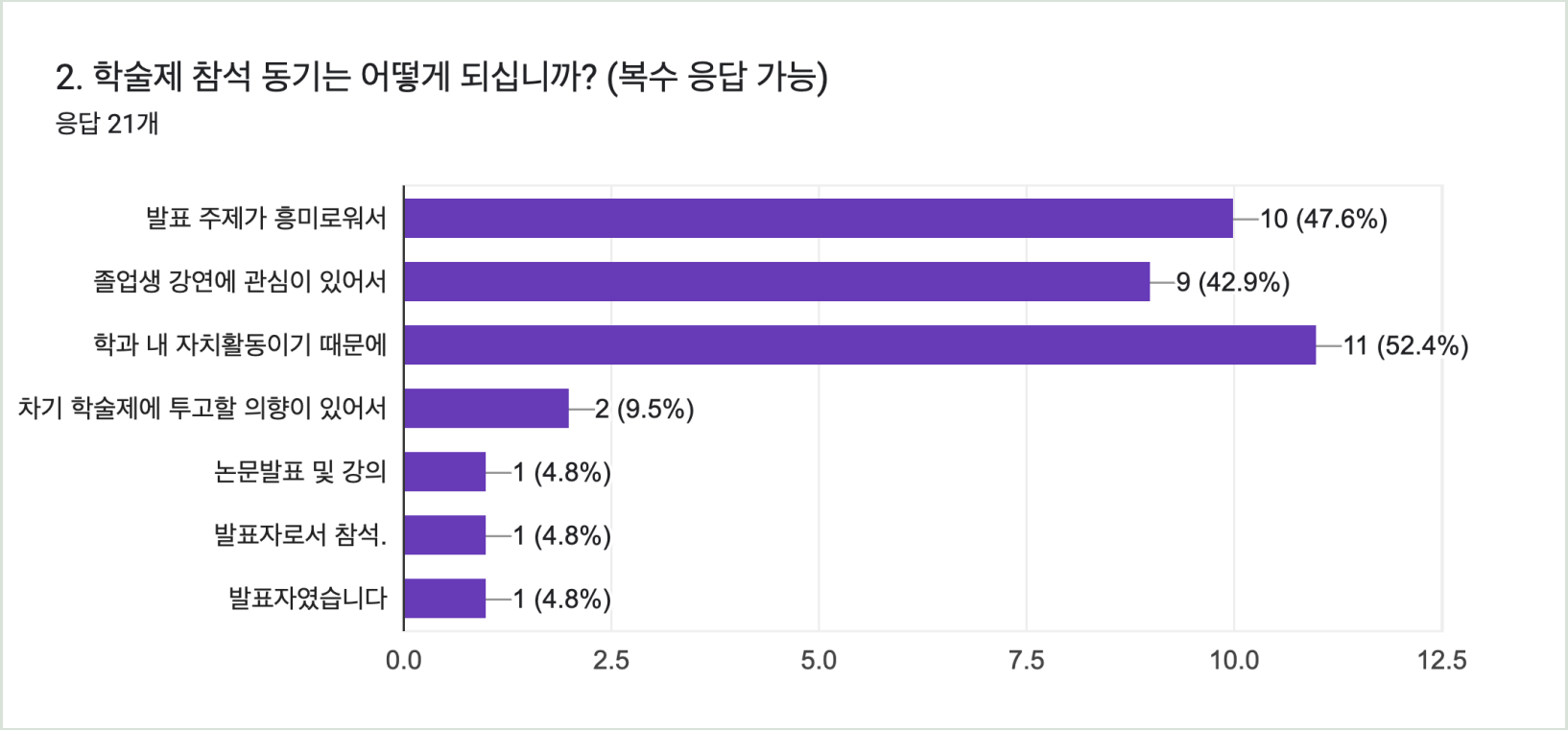
1-1. 재학 중인 학기는 어떻게 되십니까?

응답 21개



- 석사 과정생 및 수료생이 대부분.
- 추후에는 졸업생까지 다양하게 참여하는 네트워킹 지향하면 좋겠음.

Ⅱ. 학술제 참석 동기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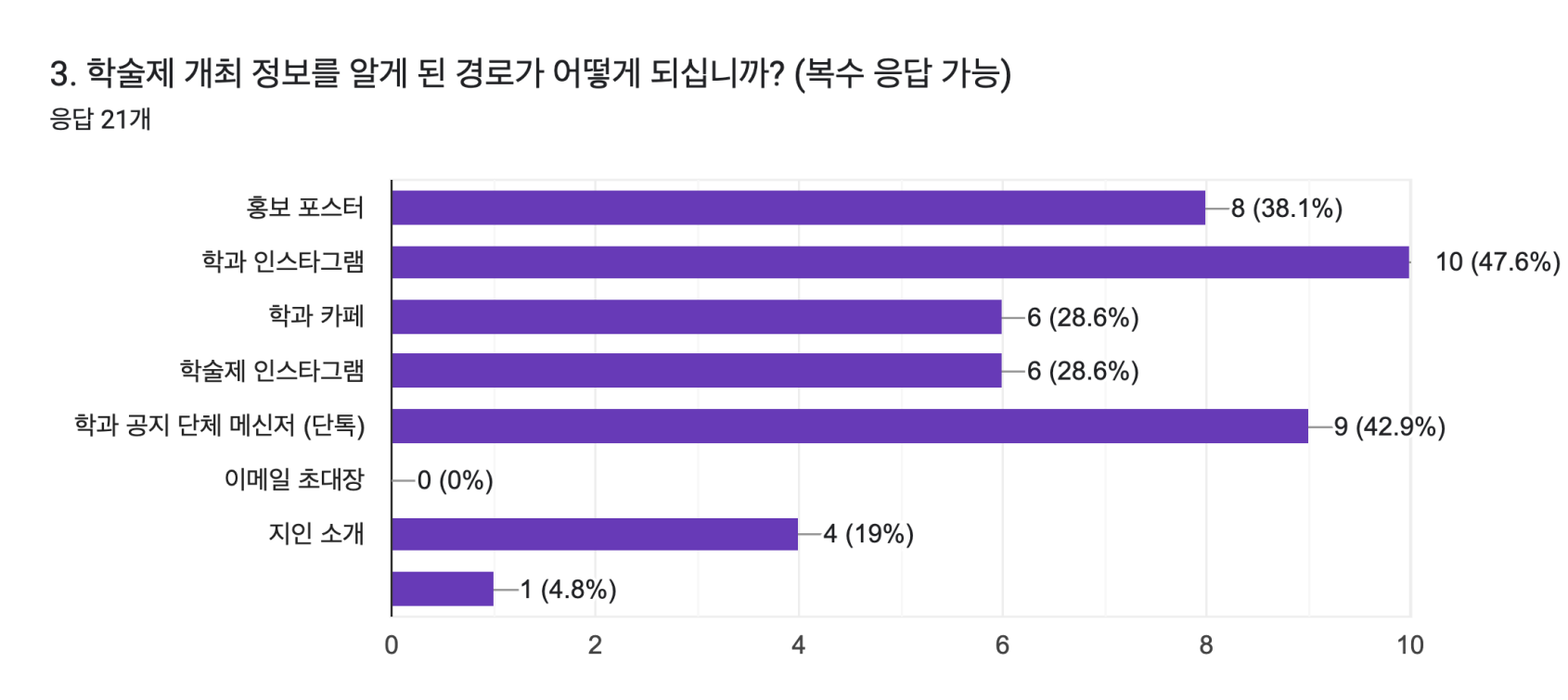


① 학과 내 자치활동이기 때문에

② 발표 주제가 흥미로워서

③ 졸업생 강연에 관심이 있어서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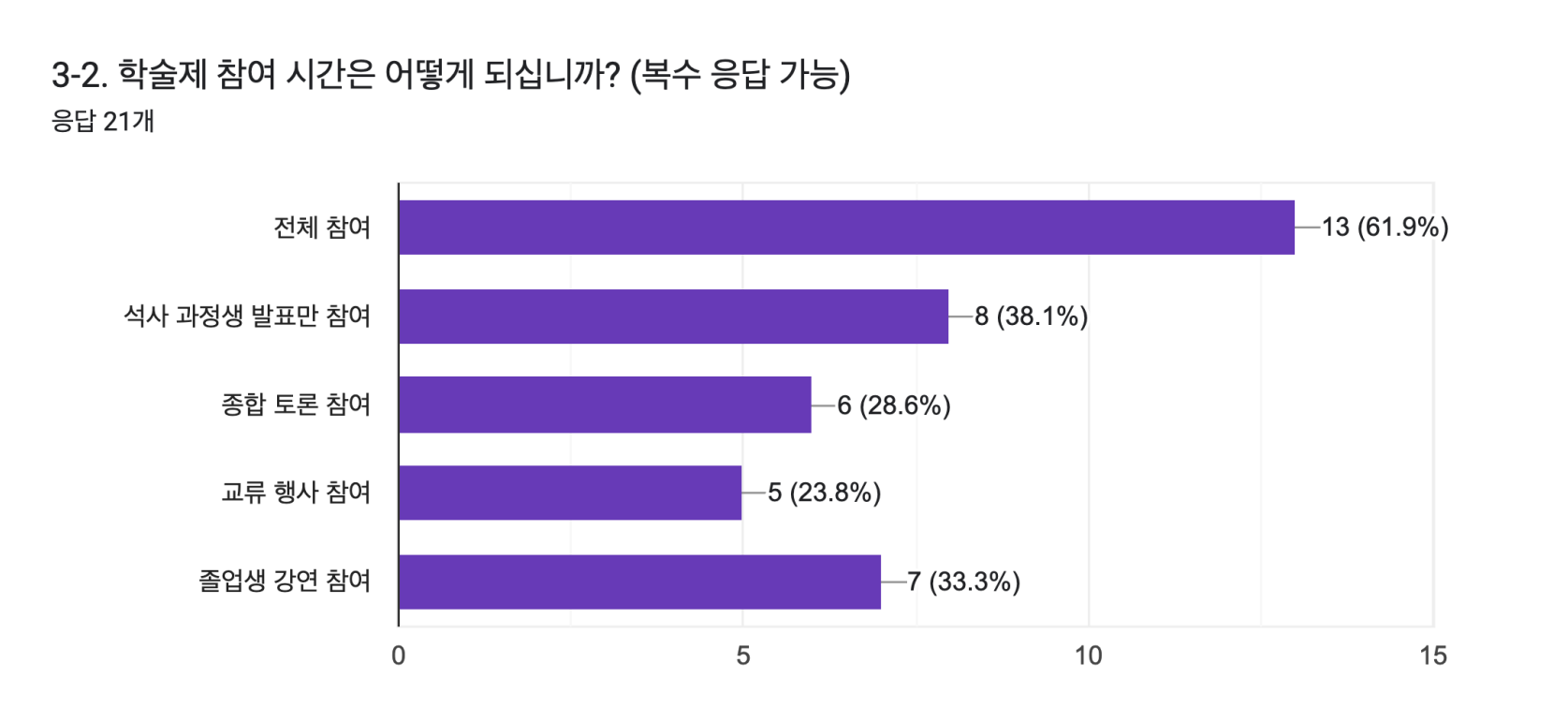
Ⅲ. 학술제 유입 경로



유입 경로가 다양한 편.

특히 인터넷 홍보를 강화하면 좋을 듯.

Ⅳ. 참석 시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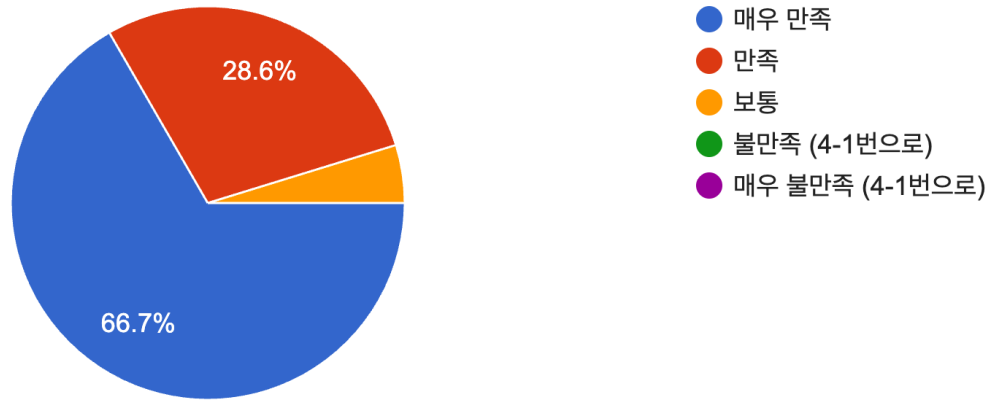


전체 참여 비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 고민 필요.

Ⅴ. 학술제 주제

4. 이번 학술제의 주제(시간의 층위, 이데올로기의 흔적)에 대한 만족도가 어떻게 되십니까?

응답 21개



4-2. 희망하거나 제안하고 싶은 차기 학술제 주제가 있다면 자유롭게 기재하여 주세요.

응답 2개

동서양의 '교류'<-쪽이 좀 더 강조되는 학술제가 언젠가 열리면 정말 좋겠습니다...! (동서문명교류사, 식민지 미술 등 넓은 범위에서...) 교류사가 어렵지만 또 저희 학술제 주제와도 적합하니까요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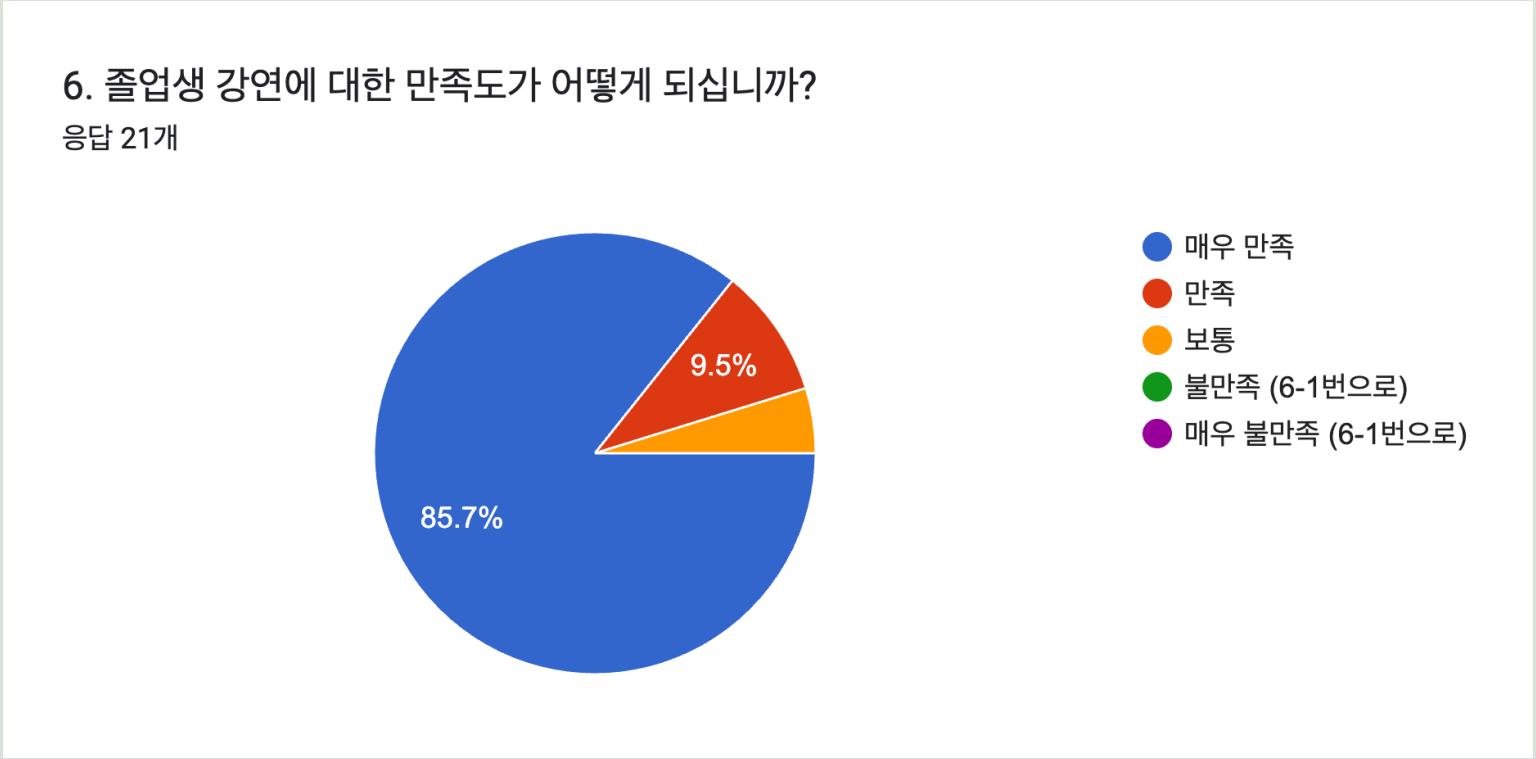
포스트 휴머니즘

* 구체적 주제 제안

- 동서양 교류 관련 주제

  ex. 동서문명 교류사, 식민지 미술 등
- 포스트휴머니즘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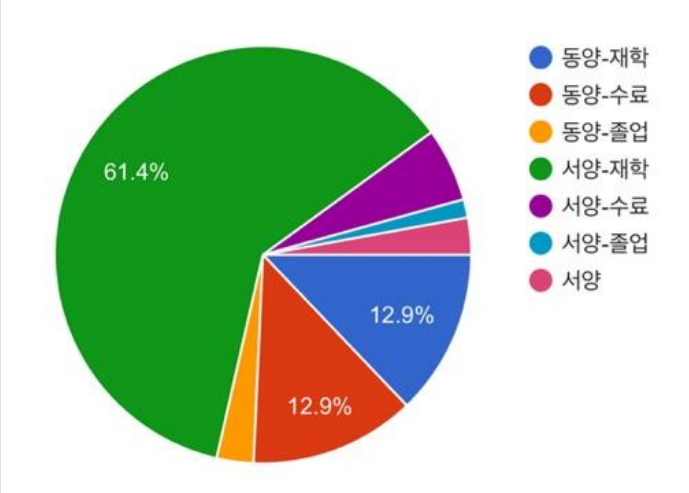
Ⅵ. 졸업생 강연



* [부록 – 사전 졸업생 강연 설문조사 결과] 참고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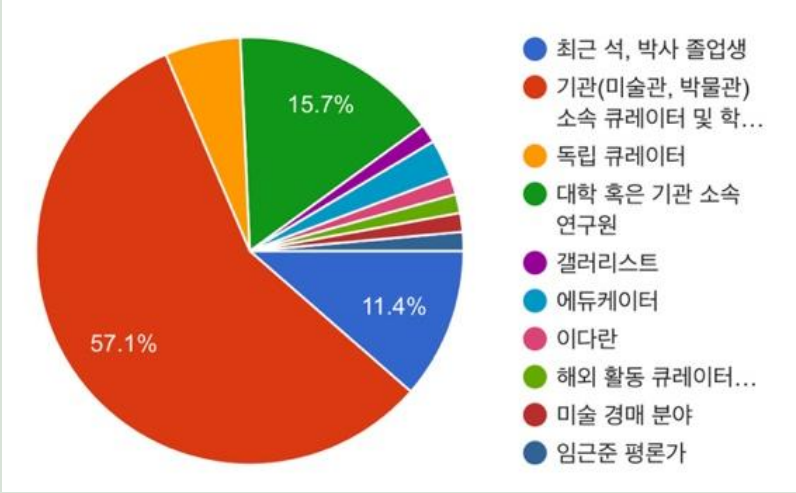
[부록 - 사전 졸업생 강연 설문조사 결과]

1. 응답자 정보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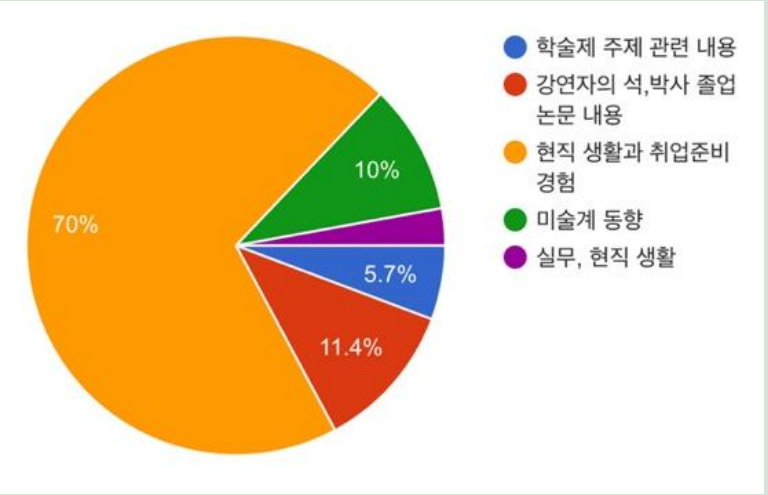
총 70건의 응답자 중
동양 20명 / 서양 50명

2. 강연자 관련



① 기관 (미술관, 박물관) 소속 큐레이터 및 학예사
② 대학 혹은 기관 소속 연구원
③ 에듀케이터
④ 독립 큐레이터
⑤ 실명 기입: 이다란, 임근준

3. 강연 내용 관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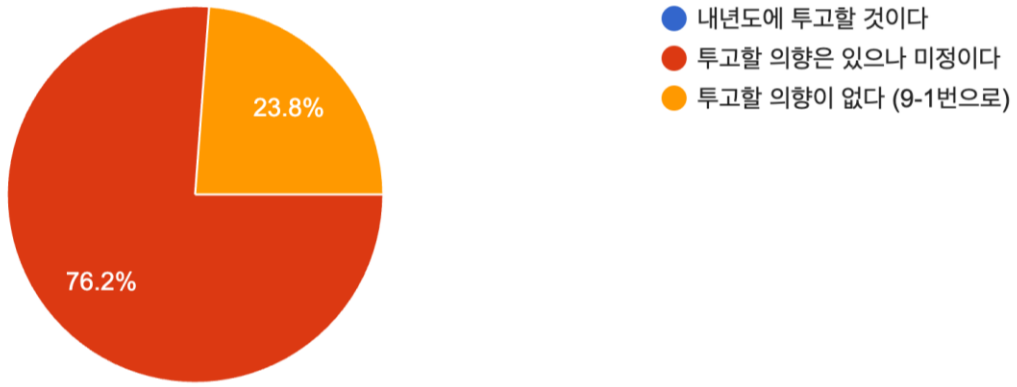


① 현직 생활과 취업 준비 경험
② 강연자의 석, 박사 졸업 논문 내용
③ 미술계 동향
④ 학술제 주제 관련 내용
⑤ 실무, 현직 생활

Ⅶ. 추후 투고 의향

9. 차기 학술제에 투고 의향이 있으십니까?

응답 21개



9-1. 9번 문항에서 '투고할 의향이 없다'를 선택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?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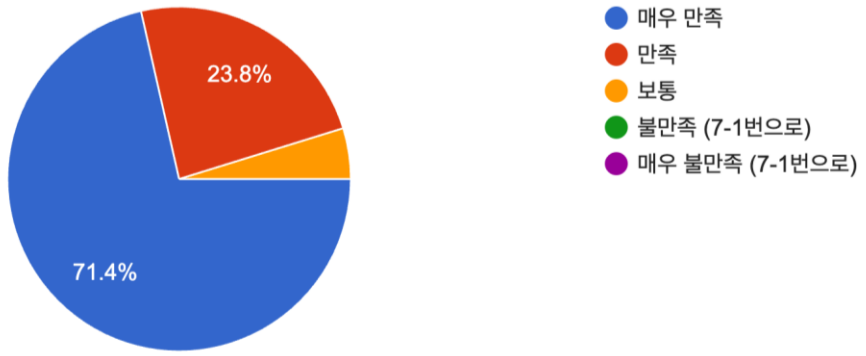
응답 3개

- 이미 했기때문에
- 졸업했어요ㅎㅎ...
- 힘들다...

Ⅷ. 학술제 만족도 및 피드백

7. 학술제 전반에 대한 만족도가 어떻게 되십니까?

응답 21개



10. 학술제 전반에 대해 의견이나 건의사항이 있으시다면 자유롭게 기재하여 주세요.

응답 4개

늘 한정된 상황에서 꾸려나가시는 걸 잘 알고 있기에 응원합니다!!! 동양파트 선생님들이 더 많이 참여해주시면 좋겠네요ㅠㅠ....

너무 좋았어요 내년에도 기대하겠습니다!

학술제팀 짱!!💚

위원회의 수고, 홍보, 노력에 비해 학과 참여가 저조한 점이 아쉬운 것 같습니다. 이를 개선할 현실적인 방법을 고민해보면 학술제 의의가 더 커질 것 같습니다

* 구체적 피드백

- 동양 파트 참여율 강화
- 학술제 참여율 강화 방법 고안